

제 목	국 문	우리나라 일부 대학신입생들의 흡연결정요인		
	영 문	Predictors of Smoking Prevalence among Freshmen of Colleges in a Korean Area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기순 ²⁾ , 박종 ²⁾ , 김양옥 ²⁾ , 최진수 ¹⁾ 1)전남의대에방의학교실, 2)조선의대에방의학교실,		
	영 문	Ki-Soon Kim, Jong Park, Yang-Ok Kim, Jin-Soo Choi		
분 야	역 학	발 표 자	박 종(일반회원)	
발표 형식	포 스타	발표 시간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0) → 완료 예정 시기 : 93년 12월			
<p>1. 연구 목적</p> <p>대학신입생들의 흡연실태를 파악하고, 흡연행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을 파악하여 차후 흡연을 감소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함.</p> <p>2. 연구 방법</p> <p>광주직할시 소재 한 개 국립 및 사립대학교의 1993년 남자 신입생 4,437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한 흡연조사양식 중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양식을 번역하여 무기명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작성하게 한 후 수집하였다.</p> <p>흡연자의 분류는 흡연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현재 매일 1회 이상 흡연하는 자를 상습흡연자로, 현재 흡연은 하고 있지만 매일은 아닌 경우 불규칙흡연자로 분류하였으며, 과거흡연자는 비흡연군에 포함시켜 처리하였다.</p> <p>분석 방법은 흡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요인에 대해 단일변량분석 후 다변량로지스틱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유의한 요인을 파악하였다.</p>				

3. 연구 결과

1) 매일 흡연하는 상습흡연자는 3.6%, 불규칙흡연자는 10.0%로써 전체의 23.6%가 현재흡연을 하고 있었으며, 과거흡연자를 포함한 흡연경험율은 42.2%였다.

2) 일반적 특성 중 재수여부, 본인 및 부모의 종교여부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지원계열별, 거주지역 등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3) 사회환경적 요인 중 형제 및 친한 친구의 흡연, 가족 및 친구가 본인의 흡연시 보이는 태도, 흡연관련지식, 그리고 본인이 흡연에 대해 느끼는 전반적인 태도 등이 유의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매일 흡연하는 상습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한 친구의 흡연, 재수여부, 본인이 흡연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경우, 친구가 본인의 흡연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 그리고 형제의 흡연 등이었다.

5) 불규칙흡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친한 친구의 흡연 여부, 재수여부, 본인이 흡연에 대해 호의적으로 느끼는 경우, 친구가 본인의 흡연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 그리고 흡연관련지식이 낮은 경우 등이었다.

4. 고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대학신입생 흡연율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써 국내외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친한 친구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일치된 견해이며 기타 사회환경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매일흡연자가 아닌 불규칙흡연자에 있어서 흡연관련지식이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입학초기에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강조한다면 흡연율을 낮출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